

# 조선총독부 발간 『보통학교수신서』를 통해 본 조선교육의 현상과 잔재\*

김 순 전\*\*·조 성 진\*\*\*

## 目 次

1. 들어가기
2. 민심통합을 위한 ‘국체’
3. 국가신도의 성격
4. 식민교육정책과 그 영향
5. 맺음말

## 1. 들어가기

최근 고이즈미(小泉純一郎)수상이 반복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하는 문제를 고 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고이즈미 수상은 자위대에 해외 파병을 명하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 천황과 전쟁에서 죽은 군인을 중심으로 한 사자(死者)를 국가의 영웅, 즉 명령으로 모시는 국가신도의 제사자로서의 천황이라는 근대천황이 가졌던 두 가지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이는 근대의 천황제 구도의 형태가 바뀐 21세기 일본이 부활하는 것이다.”<sup>1)</sup>고 논하고 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그 전쟁에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기억하는 추도집회나 ‘반핵’ 운동을 통해 그들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입장을 여전히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일본은 과거의 전쟁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 일제 잔재 청산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김상봉은 『도덕교육의 파시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덕 교육에도 파시즘적 잔재가 여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79-AS0143)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원 소장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일본문화연구원 겸임연구원

1) 고모리 요이치 지음/송태욱 옮김(2003)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했다』 뿌리와 이파리 p.10

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또한 「한겨레 21」(2006년 1월 10일, 17일자 자료)와 MBC TV <암니암니(2006년 1월 20일 보도내용)> 등에서도 ‘교육칙어’는 ‘국민교육헌장’의 전신이며, ‘황국신민서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황국신민체조’에서 ‘국민체조를 흥내 답습한 것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성토했고 있다.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서양적인 개념을 아시아적 개념으로 바꿀 때 일본의 역량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근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강압적으로 통치 지배 받는 과정에서 굴절된 근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화를 논할 때는 일본 근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근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체’와 ‘국가신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정태준은 「초등학교 탄생에 나타난 천황제 사상교육」에서 천황제 사상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민학교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교육심의회가 주도해온 정책입안 과정과 각 칙령에 담겨있는 국민학교 교육방침을 통해서 사상교육의 실체와 의도를 분석 시도<sup>3)</sup>하였고, 또 「일제강점기하 수신교과의 정책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동안 수신교과를 통한 천황제 이데올로기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가를 교육정책과 수신교과의 교수요지를 분석<sup>4)</sup>하였다. 그의 논문은 주로 교육정책에 치중되어져 있고, 당시 학교교육에서 사용된 교과서 분석은 누락되어져 있다.

그리고 박균섭은 「교육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에서 교육칙어 체제의 성립과 식민교육의 지향점 그리고 한국근대교육의 식민성 등에 대해 언급<sup>5)</sup>은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교육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또한 조연순 등의 연구실적에서도 주로 보통학교의 시대적 배경, 교육목적, 교육 내용, 교육방법과 평가 등<sup>6)</sup>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시기적으로도 1895년부터 1910년으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기와 내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까지의 교육칙어, 수신교과 및 국민학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정책적인 연구이거나 개념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학교교육에서 사용된 교과서를 분석한 예는 미

2) 우리의 근대화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였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주체성 역시 폭력적 지배체제 아래서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대적 보통교육의 치명적인 왜곡으로 귀결되었다. 일제는 근대적 학교교육의 본래적 이상까지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자유로운 주체와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들여진 노예로 기르기 위해 학교교육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김상봉(2005) 『도덕교육의 파시즘』 도서출판 길 p.27

3) 정태준(2003) 「초등학교 탄생에 나타난 천황제 사상교육」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제 23 집 pp.191-214

4) 정태준(2004) 「일제강점기하 수신교과의 정책연구」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제 27 집 pp.235-263

5) 박균섭(2002) 「교육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 일본학보 제 51 집 pp.439-454

\_\_\_\_\_ (1999)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제 43 집 pp.547-565

6) 조연순 외 4인(2005) 『한국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교육과학사 pp.53-119

미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시기는 19세기말부터 1945년까지로 하고, 먼저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국체의 형성과정과 근대천황제의 등장, 교육칙어의 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가 교육정책과 초등교육(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을 통해 학교교육을 획일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을 조직화하면서 국가 신도와 교육칙어가 조선의 국민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황민화정책의 모순, 동화정책에 가려진 차별구조 등을 조선인의 식민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 발간 『보통학교수신서』<sup>7)</sup>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2. 민심통합을 위한 ‘국체’

왜 일본 국민은 전근대적인 천황제를 창출했으며 게다가 패전 때까지 이를 유지하였을까?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 일본의 천황제의 창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세 이후 260년 이상이나 막번 체제에 길들여진 일반민중들에게 천황은 생소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또한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에 관해 씌어진 유럽의 저서에서 ‘엠페러(Emperor)’라는 표현은 오로지 ‘쇼군(將軍)’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 ‘쇼군’은 지방을 통치하는 ‘영주(다이묘, 大名)’로 이해되고 있었다.<sup>8)</sup> 그런 상황에서 천황이 정치의 중앙으로 등장하고 천황의 지배와 정당성이 민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메이지 정부의 노력과 그 중심에는 천황을 받드는 ‘국체(國體)’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이하 츠루미)의 연구<sup>9)</sup>에 의하면 ‘국체’라는 용어의 기원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과 야마가타 다이카(山縣大華, 1781-1866)의 왕복서한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본 연구의 인용문에 사용된 기본텍스트는 韓基彦·李啓鶴(1996), 『韓國教育史料集成』 한국학 중앙연구원(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篇을 저본으로 인용문의 소재 표기 방법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 발행 K(기수)-(학년)-(과수)의 순서로, I기-학년五-24과의 경우는, <KI -(5)-24>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에서 발간된 『尋常小學修身書』를 기본텍스트로, 1990년 東京 大空社에서 復刻된 것을 저본으로 한다. 인용문의 소재 표기 방법은, (기수)-(권수=학년)-(과수)의 순서로, I기-卷五-24과의 경우는, <JI -(5)-24>로 표기한다. 국정교과서의 구분은 교과에 따라 다르다. ‘修身’도 최초의 국정 교과서 이후, 전면개정이 4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5기로 구분하고 있다. 김순전 외 번역(2005) 『일본초등학교수신서 1904』 제이앤씨 pp.18-19 참조

8) 테사모리스 슌스키 지음/박광현 옮김(2005)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산처럼 p.113

9) 츠루미는 橋川文三 「國體論の連想」 『展望』(1975년 9월호)에 따르고 있다

요시다는 이 용어를 일본민족 특유한 추진력으로 인식했으며 그의 논쟁 상대인 야마가타는 일본민족만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민족 모두가 각각 동일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국체’는 일본국가의 현재 정치체제나 질서에서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되었다. 『古事記』의 신화에 입각해서 국체란 신들의 사회 이후에 결코 끊어진 일이 없이 하나로 이어져 내려온 천황(天子)가계를 중심으로 하여, 천황의 가계에 대한 신앙을 그 중핵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10)</sup>

츠루미는 ‘일본의 국체=천황(만세일계)’이라는 논리의 근거가 일본 『古事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일계의 전통을 내세우는 이러한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메이지 정부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대일본에서 천황이 중앙정치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에도막부가 계속되는 서양열강의 개국 압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조정(천황)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초 일본의 국가적 위기는 민심이 국가를 떠나가는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 1782-1863)는 『新論』에서 대외관계가 절박한 가운데 국체론에 의한 인심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국가적 규모의 제사에서 찾았으며, 제사·정치·종교의 일체화를 주장하였다. 그의 “억조 마음을 하나로 하여”와 같은 말이나 충효일치의 주장은 나중에 교육칙어(教育勅語)나 수신교육(修身教育)의 근원이 되었다.<sup>11)</sup> 이러한 야스마루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자와는 일본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고 민심을 국가적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국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자와의 주장에 동조하여 근대 일본의 선결과제로 국체론을 들고 나온 것이 미토학(水戸學)이었다.

1890년에 발표된 『교육칙어』의 내용 중 “우리 신민이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억조일심(億兆一心)으로 세세(世世)에 그 미덕을 다함은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이니”라는 말은 아이자와의 『新論』이나 미토학이 주장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3. 국가신도의 성격

메이지 정부는 서구화와 더불어 일본 국내로 밀려오는 기독교 세력에 대항할 만한 무

10) 鶴見俊輔 지음/ 최영호 옮김(2005) 『전향 쓰루미 슌스케의 전시기 일본정신사 강의 1931-1945』 논형 pp.53-54 원제는 『戰時期の日本精神史(1931-1945)』

11) 야스마루 요시오 지음/ 이원범 옮김(2002) 『천황제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 小花 p.64

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곧 그 해답을 일본 고대로부터 있었던 신도에서 찾았으며 이를 국가신도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신도는 자연 종교적인 신사신도를 모태로 하여 독특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로 근대 천황제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국가신도의 교전 역할을 한 교육칙어(敎育勅語)는 1890년 10월 30일에 발표하여 교육의 기본을 제시하는 등 국가주의정책을 관철해 나아갔다. 전문 315자로 구성된 교육칙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祚皇宗)이 나라를 여실 때에 규모를 광활하게 원대하게 하시고 덕을 깊고 두텁게 세우셨노라. 우리 신민이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억조일심(億兆一心)으로 세세(世世)에 그 미덕을 다함은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이니 교육의 연원(淵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노라.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친구 간에 서로 믿으며, 스스로 공손하고 검소하게 행동하여 널리 사랑을 베풀고, 학문에 힘쓰고 일을 배움으로써 지능을 개발하고, 인격향상에 노력하여 공익을 넓히고, 사회의 의무를 다하며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시하고 준수하며, 만일 유사시에는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여 천양무궁한 황운(皇運)을 도와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면 오로지 짐의 충량(忠良)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히 너희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하리라. 이 도리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이시니 자손과 신민이 모두 준수할 것인 바, 이것을 고금(古今)을 통해 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국내외에 베풀어야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은 신민과 함께 삼가 명심하여 잘 지키고 행하며 모두 그 덕을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sup>12)</sup>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는 『神々の明治維新』의 한국어판 머리말에서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천황제 국가 체제의 정통성 원리가 구성되었으며, 이 시기야말로 일본의 사상사·문화사·종교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sup>13)</sup>고 서술하고 있다.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도 『國家神道』에서, “국가신도는 근대천황제국가가 만들어 낸 국가종교이며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에 걸쳐 일본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sup>14)</sup>고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국체는 다이묘 중심체제에서 천황 중심체제의 권력 이양과정에서 국민적 혼란과 동요를 방지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력 역할에 필요한 것이고, 국가신도란 국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민심을 통합하고 일본이 서구의 근대

12) 김순전 외 번역(2005) 『일본초등학교 수신서(1934) 제IV기』 제이앤씨 pp.297-300

13) 야스마루 요시오 지음/ 이원범 옮김(2002) 앞의 책 p.8

14)村上重良(1970) 『國家神道』 岩波新書 p.1

화를 추구하면서 서양의 기독교에 대한 대항개념으로 신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신도를 『古事記』 『日本書紀』 등의 기기신화(記紀神話)를 인용하여 고대 천황제 국가에서 그 기원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근대에 이르러 메이지 정부에 의해 창출된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국체는 국내적 민심동요를 잠재우며 서양을 따라 잡기위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신도는 외부세력인 기독교에 대항하며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국체와 국가신도의 교전(敎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육칙어라 할 수 있다.

## 4. 식민교육정책과 그 영향

일제는 천황 중심 국가체제의 국체와 국가신도를 조선인에게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등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점차 황민화교육에 주력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황민화교육 양상이 두드러지는 1938년 3월에 발표된 제 3차 조선교육령과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황국신민화 정책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집단의식 훈련과 행사 등의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식민지 전시체제에 ‘완전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화정책과 ‘연성과 학도동원’이라는 전쟁준비를 위한 조선 식민지 민중을 천황제 사상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교육정책이 바뀔 때 마다 식민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례를 『보통학교수신서』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 4.1. 교육정책 변화와 ‘국민학교’

일제가 조선민족을 말살시키고 민족문화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국민학교의 제정<sup>15)</sup>과 ‘국민학교’의 실체가 무엇인가? 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자료로 히로히토가 <칙령 제 148호>로 1941년 2월 28일에 포고한 ‘국민학교령’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두 58조의 ‘교칙안(校則案)’으로 히로히토가 결재하고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가 공포한 총독부령 제 90호 ‘국민학교 규정’으로 내선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일본이 학교를 황민육성의 목적을 위해 국민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학교를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체제로 보인다. 이는 나치스의 폴크스슐레(Volksschule)를 본받아서 국민학교로 개편한 것이다. 이 처럼 ‘황국신민’이나 ‘국민학교’의 개념과 시스템에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처럼 일본의 군국주의가 황국신민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씨울교육연구회 편역(1995)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 한울 p.44

제 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해야 함

1.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서 황국의 길을 수련하게 하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공고하게 하고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히 하도록 힘써야 함.
2.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충량한 황국신민다운 자질을 얻게 하고 내선 일체, 신에, 협력의 미풍을 기르도록 힘써야 함.
5. 교수, 훈련,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하여 단련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통일적 인격의 발전을 기해야 함.
6. 각 교과 및 과목은 그 특색을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상호의 관련을 긴밀하게 하고 이를 황국신민 연성의 길로 귀착하게 함.
13. 순정한 국어(日本語)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고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황국신민다운 성격을 함양시키도록 힘써야 함.
14. 교수 용어는 국어(日本語)를 사용해야 함.<sup>16)</sup> (밑줄은 필자, 이하 동)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는 국민학교<sup>17)</sup> 교육을 통해 철저히 조선어 대신 일본어 사용을 강요<sup>18)</sup>하였으며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의 정신과 사명을 강조하며 황국신민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즉 국민학교는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학교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국민학교 제도 연구회의 『原案準據國民學校의實踐的解說』에서 ‘왜 황국신민화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일본교육의 연원은 국체의 정화에 있다. (중략) 황국의 도야말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칙어에 명시되어 있던 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황국의 도에 귀일시킨다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황국의 도이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연원의 출발점이 국체의 정화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국의 도에 귀일한다는 것은 일체의 일본교육의 원리와 근원을 말한다. 때문에 황국의 도는 일본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도달점이며, 또한 목적원리이면서 방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16) 서울교육연구회 편역(1995) 앞의 책 pp.232-233

17)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1995년 8월 11일 “일체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였다.

18) 간호당변 4명이 교무실에 와 ‘국어상용(國語常用)’이란 표를 받아 그 표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규칙을 어겨 우리말을 쓰는 학생을 발견하면 표를 주어 국어(일본어)상용을 강요하였다. 간호당변제도는 국민학교 주변제도의 원조이다. 김남식 「쓰레기를 주우며, 시대의 넝마를 주우며」(2) 서울교육을 배우는 모임 『서울교육』 들췌호(1992년8월) pp.25-26

19) 國民學校制度研究會(1940. 5) 『原案準據國民學校의實踐的解說』東京: 文教書院 十九版 서울교육연구회편역(1995) p.113 재인용

위 내용은 황국신민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황국의 도’라든가 ‘국체의 정화’로 귀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내선일체’라는 식민지 교육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민족교육의 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식민지 학교의 풍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침 애국 조회는 천황에 대한 경배와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라는 애국 훈화로 이루어진다. 조회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체조를 실시한다. 국민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1일과 15일에 신사 참배도 절대 빼놓아선 안 된다. 또한 매달 10일에는 조회 때 교사들이 교육칙어를 낭독하여 국민정신을 강조한다. 황국신민의 의식화와 국민정신을 진작하기 위해 매월 1일, 10일, 15일은 일장기 게양식을 치른다.<sup>20)</sup>

일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천황에 대한 충효의 관념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주입시켰고, 황민화교육은 학습활동에서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해서 강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2. 교육칙어의 변용과 식민교육의 잔재

교육칙어는 일제에 의한 조선합병 이전인 한국 통감부시대에 이미 강제로 부식되고 있었다.<sup>21)</sup> 한일합병 후, 일제는 교육칙어에 근거한 「朝鮮教育令」<sup>22)</sup>을 조선인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칙어는 러일전쟁 후의 「무신조서」(戊申詔書, 1908), 관동대지진 직후에는 「국민정신작흥조서」(國民精神作興詔書, 1923), 「청소년 학도에 하사하신 칙어」(靑少年學徒二賜ハリタル勅語, 1939), 「미국 및 영국에 대한 선전의 칙어」(米國及英國二對スル宣戰ノ勅書, 1941)로 그 내용을 보완하는 조칙이 계속 내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통학교수신서』에도 <KⅢ-(6)-18> 「戊申詔書(1)」, <KⅢ-(6)-19> 「戊申詔書(2)」, <KⅣ-(6)-13> 「國民精神作興に關する詔書(1)」, <KⅣ-(6)-14> 「國民精神作興に關する詔書(2)」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가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철저하게 천황 절대체제를 교육시키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칙어는 『보통학교수신서』 제 I기에서 제 V기까지 매 기마다 나오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각 권두에 게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Ⅰ-(4) 권두>, <KⅡ

20) 이치석(2005) 『전쟁과 학교』 삼인 pp.83-84

21) 「御眞影並勅語謄本放置心得 1891年4月 韓國統監府訓令第14号」

佐藤秀夫(1996) 『續・現代史資料10 教育 御眞影と教育勅語3』 みすず書房p.3

22) 「第1次 朝鮮教育令」 1911年 勅令第229号

- (4)~(6) 권두>, <KⅢ-(3)~(6) 권두>, <KⅣ-(4)~(6) 권두>, <KⅤ-(4)~(6) 권두>에 수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수신서 본문에는 <KⅠ-(4)-25>(1), <KⅠ-(4)-26>(2), <KⅠ-(4)-27>(3), <KⅡ-(4)-23>, <KⅡ-(6)-21>, <KⅡ-(6)-22>(계속), <KⅡ-(6)-23>(계속), <KⅢ-(5)-19>(1), <KⅢ-(5)-20>(2), <KⅣ-(5)-19>(1), <KⅣ-(5)-20>(2), <KⅤ-(5)-22>(1), <KⅤ-(5)-23>(2)에 게재되어 있다. 교육칙어는 일본근대교육의 지도이념이었으며 일제 식민지기의 조선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육칙어가 실린 수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Ⅲ-(5)-19> 「教育に關する勅語一」에서는 교육에 관한 칙어는 메이지 천황께서 일본신민이 반드시 행해야 할 도덕의 근본을 나타낸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교육칙어를 세 단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제1단은 다음과 같다.

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이 나라를 여실 때에 규모를 광활하게 원대하게 하시고 덕을 깊고 두텁게 세우셨노라. 우리 신민이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역조일심으로 세세에 그 미덕을 다함은 우리 국체의 정화이니,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노라. <KⅢ(5)-19> <JⅣ-(6)-25>

또한 이 단에서는 황실의 선조가 우리나라를 여시는데 당면하여 그 규모가 광대하고, 선조가 신민을 사랑하여 만세에 본보기를 보인 것처럼, 신민은 주군에게 충의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국체의 정화를 모르면 국민이 될 자격이 없으며 이를 ‘교육의 연원’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KⅢ-(5)-20> 「教育に關する勅語二」에서는 교육칙어를 두 단으로 나누어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칙어의 제2단에는,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중략) 만일 유사시에는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여 천양무궁한 황운을 도와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면 오로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히 너희 선조의 유풍을 현창하리라. <KⅢ-(5)-20> <JⅣ-(6)-26>

라고 되어있다.

이 단에서는 항상 황실전범(皇室典範)·대일본제국헌법을 중시하고 만약에 나라에 사변

이 일어나면 용기를 떨쳐 일신을 바쳐 군국(君國)을 위해 힘쓰고 무궁한 황위의 성운을 돕는 것이 신민의 책무라고 일깨우고 있다.

교육칙어의 제3단에는,

이 도리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이시니 자손과 신민이 모두 준수할 것인 바, (중략) 짐은 신민과 함께 삼가 명심하여 잘 지키고 행하며 모두 그 덕을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KⅢ-(5)-20> <JⅣ-(6)-27>

라고 말씀하신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에서는 천황은 몸소 우리들 신민과 함께 이 유훈을 지키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서 모두 덕을 같이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칙어에 제시되어져 있는 도리는 우리 신민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며 우리들은 지성을 다해 밤낮으로 이 칙어를 잘 받들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교육칙어 내용은 일본 『尋常小學修身書』 <JⅣ-(6)-25>, <JⅣ-(6)-26>, <JⅣ-(6)-27>에도 수록되어져 있다. 이는 미나미 총독의 이론처럼 “내지인이나 조선인이나 구별없이 한 토대에서 황국신민으로 하는 것이 이상이다”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칙어는 식민지 조선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놈의 명치천황이 반포했다는 일본군국주의 교육의 강령적 지침인 이른바 교육칙어라는 것을 ‘一視同仁’으로 조선인에게도 적용한다는 등 생색을 내면서 심상소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일본 국경일에는 이 교육칙어를 학교교장이 근엄하게 읽었고 아이들과 선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경청하도록 했다.<sup>23)</sup>

학생들은 교육칙어가 봉독되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해야 했다. 이는 교육칙어가 유교적 성격을 지닌 교전이기에 보다는 국가신도적 성격을 띤 교전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국가와 자신을 일체시키는 것을 의연 중 강요하게 된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에게 그들의 국기와 국가를 학교 행사와 교육을 통해 철저히 강요하게 되는데, ‘히노마루(日の丸)’와 관련된 과는 <KⅠ-(1)-10> 「天皇陛下」와 <KⅡ-(1)-15> 「天皇陛下」를 들 수 있다. 이 과에서는 천황가를 상징하는 국화 문양과 일장기 삽화를 나란히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KⅢ-(2) 권두>, <KⅣ-(2) 권두>

23) 안재구(1997) 『할배, 왜놈 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 들배개 p.150

에도 일장기 삽화가 게재되어져 있다.

국기와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본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기에 대한 것은 <KⅡ-(4)-20> 「國旗」, <KⅢ-(1)-19> 「日のマルのハタ」, <KⅣ-(2)-1> 「祝日・大祭日」(삽화), <KⅣ-(1)-6> 「日のマルのハタ」, <KⅤ-(3)-16> 「日の丸の旗」, <KⅤ-(5)-22> 「御稜威のもとに」(삽화), <KⅤ-(6)-23> 「國交」(삽화)가 있다.

조선, 만주, 대만 등 일본군 점령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히노마루’를 불러야 했다.

흰 바탕에 붉게 히노마루 물들여 아, 아름답다 일본기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기운을 보고 아, 용감하다 일본기는<sup>24)</sup>

일제는 끊임없는 학교교육을 통해 일상화된 황국신민의 의식을 아동들에게 고취시키고, 그 아동들은 어느새 국채관념과 내선일체에 세뇌되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아동들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다.

천황제 사상교육을 위한 교화수단의 하나로서 창가는 아동들의 정서에 국채관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는 <KⅢ-(2) 권두>, <KⅣ-(2) 권두>에는 히라가나로 <KⅣ-(1) 권두>에는 가타카나로 <KⅣ-(3) 권두>, <KⅤ-(4)-1> 「國歌」에는 한자와 히라가나로 수록되어져 있다. 그 가운데 <KⅤ-(4)-1> 「國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황폐하의 치세는 천년, 만년, 조약들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sup>25)</sup>

라고 부르는 소리가 장엄한 음악소리와 함께 학교 강단에서 들여옵니다.

오늘은 천장절(天長節)입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식이 시작되어 모두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KⅤ-(4)-1> 「國歌」

일제는 끊임없이 학교교육과 행사를 통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과정으로 아동들에게 히노마루를 바라보며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여 아동들의 의식 속에 ‘충량한 신민으로 자라나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것이 일제가 노린 ‘국민기초의 연성’이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심화되면서 제 3차 조선교육령 이후 학교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 가던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았다. 구한말부터

24) 朝鮮總督府(1914) 『初等唱歌 第六學年用 新編唱歌集』 p.10, p.26

25) 君が代は、千代に 八千代に さされ石のいはほとなりて、こけのむすまで。

김순전 외 번역(2005) 『일본초등학교 수신서(1934) 제Ⅳ기』 제이앤씨 p.165에서 인용함

일제시대의 조선 학교 시간표를 살펴보면 일제가 조선민족의 상징인 언어를 어떻게 탄압해 왔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1> 주당 수업시수<sup>26)</sup>

	1906년				1909년			1917년			1938~1941년			1941~1945년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수신	국어 (일본어)	조선어 (한문)	수신	국어 (일본어)	조선어	수신 국어(일본어)
제1학년	1	6	4	6	1	10(9)	6	1	10	6	2	10	4	11
제2학년	1	6	4	6	1	10(9)	6	1	10	6	2	12	3	12
제3학년	1	6	4	6	1	10(9)	6	1	10	5	2	12	3	2(9)
제4학년	1	6	4	6	1	10(9)	6	1	10	5	2	12	2	2(8)
제5학년											2	9	2	2(7)
제6학년											2	9	2	2(7)
합계	4	24	16	24	4	40(36)	24	4	40	22	12	64	16	

\* <보통학교(1906, 1909, 1917), 심상소학교(1938~1941), 국민학교(1941~1945)>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시수는 1917년 일본어 10시간 조선어 한문 5~6시간이었던 것이 1938~1941년에는 수신이 2시간, 일본어가 9~12시간인 것에 비해 조선어는 2~4시간에 불과하며 선택과목이었다. 그러다가 1941~1945년에는 조선어는 누락되고 수신(국민도덕 포함) 및 일본어가 9~12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창씨개명과 태평양전쟁으로 징병제도가 실시되면서 민족말살정책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총독부령 제 269호> 로 시행된 시행규칙은 연성항목을 훈육, 학과, 교련, 근로작업으로 구분하여 모두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황국신민화의 세뇌와 군사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성소 명칭과 기능은 자유당 시대까지 그대로 존속되면서 박정희(1917~1979) 이후 전두환(1931~ ), 노태우(1932~ ) 등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는 ‘교련’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다.<sup>27)</sup> 1989년 이후 폐지된 군사훈련(교련)도 군사독재정권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일제 잔재의 유산이며 친일 교육제도의 소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4.3. 동화정책에 가려진 차별구조

일제는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사상을 신도로 간주하고, 일본의 ‘국체’인 천황을 숭배하도

26) 이치석(2005) 앞의 책 pp.247-251 참조

27) 씨을교육연구회편역(1995) 앞의 책 p.51

록 강요하였다. 수신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은 그러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Ⅲ-(3)-12> 「神をうやまえ」에서는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삽화를 게재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나 신사가 있습니다. 이들 신사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비롯해, 대대로의 천황과 나라를 위해 업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경성(京城)의 조선신궁(朝鮮神宮)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두텁고, 진심으로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참배해서 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KⅢ-(3)-12> 「神をうやまえ」

고 하며 메이지천황과 그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총독부는 신도측이 단군을 조선신궁의 제신으로 하자는 안에 반대하였으며, 1912년부터 경찰법 처벌규칙을 제정하여 단군을 제신으로 하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유사종교 단체들을 단속, 통제해 왔다. 1925년 조선신궁의 제신으로 아마테라스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 이외에 단군을 받드는 것은 그 간의 조선총독부 정책과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욱이 단군과 일본의 국체의 중심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와 동렬시킨다는 것은 국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8)</sup>

그러한 영향으로 조선총독부는 메이지천황과 그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한민족 전통신화인 단군에 대해서는 미신적 존재로 기술하고 이를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미신에 빠지지 마라(迷信におちいるな)’는 일본 『尋常小學修身書』 <JⅢ-(4)-17>, <JⅣ-(4)-9>에도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동네에 눈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전부터 어느 곳의 물이 눈병에 좋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그것을 가져와서 매일 눈을 씻고 있습니다. (중략) 그 후 치료를 받은 덕분에 왼쪽 눈은 겨우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어리석어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믿어 완전히 장님이 될 뻔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미신입니다.” 라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JⅣ-(4)-9> 「迷信におちいるな」

위의 내용에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尋常小學修身書』에 등장하는 미신에 관한 내용은 ‘위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근대문명이 들어오면서 서구로부터 유입된 의학을 믿

28) 최석영(1999)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pp.121-122

기보다는 전통적이고 민간생활 속에 정착되어진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편찬 『보통학교수신서』에서는 <KⅡ-(4)-12>, <KⅣ-(3)-15> 외에 <KⅢ-(3)-13>, <KⅣ-(3)-15>에서는 단원의 제목은 ‘미신에 빠지지 마라’ 이지만 <KⅢ-(3)-13>에는 단군형상을 한 삽화를 게재하고, <KⅣ-(3)-15>에서는 단군에게 절을 하며 받드는 이들을 무속인 취급하고 있다. 결국 『보통학교수신서』에 나오는 ‘미신에 빠지지 마라’라는 내용은 일제가 조선민족이 자주성을 고취하기 위해 단군을 받드는 이들을 무당으로 묘사하며 이를 바르지 않은 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민족의 ‘민속신앙=미신’이라는 코드를 설정하여 이를 말살시키려는 수단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적 전통인 민속신앙을 일본 고유 신앙인 신도로 대치시키고, 한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 대신에 그들의 만세일계의 상징인 천황을 신으로 승격시켜 숭배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을 유도·회유·강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황국신민화정책은 내선일체를 철저히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일제는 1937년 10월 2일에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정하였다. 이 황국신민서사는 『보통학교수신서』 <KⅣ-(1)-24> 「ヨイ コドモ」, <KⅣ-(4)-1> 「祝日・大祭日」, <KⅣ-(5)-18> 「我が國」, <KⅣ-(6)-20> 「皇國臣民の覺悟」, <KⅤ-(4)-1> 「祝日・大祭日」, <KⅤ-(5)-12> 「朝鮮神宮」, <KⅤ-(5)-24> 「皇國臣民」에 수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필자 번역)<sup>29)</sup>
- (KⅣ-(4)-1) 「祝日・大祭日」

이 <황국신민의 서사>는 당시 미나미 총독이 내선일체를 내걸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전개할 무렵에 국민정신 함양을 표방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1937년 10월 2일에 미나미가 결재한 것이다. 아동용·성인용 두 종류로 된 이 <황국신민의 서사>는 조선의 남녀노소가 황국의 충량한 신민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한 내용으로 일종의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본토의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다만 조선에서만 강요되었다.

29) 一、私共ハ 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  
二、私共ハ 心ヲ合ハセテ 天皇陛下ニ忠義ヲ盡クシマス  
三、私共ハ 忍苦鍛鍊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

<황국신민의 서사>는 초등학생의 이동과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 관공서와 회사 등에서 조회 때마다 외우게 하였고, 5인 이상의 회합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심지어 각 가정에 대해서는 이 서사를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 외우도록 하였는데, 서울 남산에는 황국신민 서사의 탑<sup>30)</sup>을 세우기도 하였다.<sup>31)</sup>

일제는 조선의 전통적 민속신앙과 유교를 전근대적 요소로, 민족의 전통신화인 단군을 요망스럽고 간사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적 신도와 그 중심에 있는 국체인 천황을 공경하고 받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여 ‘내지인이나 조선인이나 구별 없이’라는 명목 하에 황국신민화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화 하여 일제는 조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일본인은 우수한 존재로 대치 묘사하면서 점차 조선민족의 혼과 이상을 파괴시키고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 4.4. 선별적 황민화정책

일제는 한국을 합병한 후에 조선인의 동화를 표방하면서, 조선 영토의 변경을 동반하는 ‘영구합병’을 목적으로 한 식민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지연장주의’를 내세웠으며 ‘내선융합’의 연장선상에서의 ‘내선일체’가 주된 핵심이었다. 그 논리의 핵심으로서 ‘제국신민’ 또는 ‘황국신민’으로서 ‘국민’적 일체감을 강조하게 된다.

1930년대 후반 황국신민화 정책이 전개되면서 보통학교 집단 훈련에서 군사훈련의 성격이 한층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보통학교에서 체력 훈련이 강화되었다. ‘황국신민체조’라는 이름의 목검을 이용한 검도 체조, 건강 체조, 건국 체조 등이 개발되어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훈련되었다.<sup>32)</sup>

또한, 중일전쟁의 전면적인 전개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파시즘 지배를 한층 강화시켰다. 이것은 내선융합에서 내선일체로의 슬로건 변화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인에 대한 완전한 민족말살정책을 의미하며 민족모순은 극에 달했다.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황민화의 적’으로 파악되는 상황 속에서 1938년 2월 지원병제도가 시행되어 조선인은 생명까지도 강요당하게 되었다.<sup>33)</sup>

일본제국의 ‘신민’을 구성하는 ‘내지인’과 ‘반도인’은 그 내선일체론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정책은 대부분의 조선인에게 제

30) 위 내용은 『보통학교수신서』 <KV-(4)-12> 「朝鮮神宮」에 게재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대문 끝에서 기다란 참도(參導)를 따라 올라가면 곧 위로 올라다 보이는 높은 석단(石段) 아래에 이른다. 그 오른쪽 언덕에는 황국신민서사의 기둥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31) 손인수(1971)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237

32)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346

33) 宮田節子 著/ 李煥娘 譯(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p.29

국민민이 '되어야 한다든가 될 수 있다'는 결단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었다. 내선일체의 논리구조는 한국인에게 일상적인 동화에 대한 결단과 차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결단'과 '차별'의 구조가 조선총독부 발행 수신서에는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I-(2)-25>, <KI-(3)-25> 「日本國民」, <KII-(2)-23>, <KII-(5)-23> 「よい國民」 등과 <KV-(4)-9> 「學級常會」(教師用)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져 있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들고 대대의 천황은 인민을 자식처럼 보살피시고 인민은 마음을 모아 충효를 다했습니다. <KII-(5)-23> 「よい國民」

국어(일본어)를 애용하고 항상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내선일체이고, 결국 일본 정신을 양양하는 데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KV-(4)-9> 「學級常會」(教師用)

일제는 신민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시는 천황에게 충효를 다하라는 천황제 가족주의국가관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어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철저히 강요하여 일본정신이 충만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시켰다.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황민화운동은 지원병제도의 전개를 계기로 '제국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핵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조선인의 내면에까지 파고드는 깊이와 세부적인 일상생활에까지 미치는 넓이를 지니고 계속 재편·강화되면서 전시동원체제로 이행해 갔다.<sup>34)</sup> 그러한 영향이 『보통학교수신서』에도 나타나는데 <KV-(6)-9> 「國民皆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중략) 일본신민 중 만 17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병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이 되어 육군 또는 해군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에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현역인 자는 물론, 모두 소집에 응하여 출정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KV-(6)-9> 「國民皆兵」

위의 내용은 <JV-(6)-8> 「國民皆兵」에도 나오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신민 중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 남자는 모두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이 되어 육군 또는 해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에 중대사가 일어날 경우에 현역에 있는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소집에 응해 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up>35)</sup> <JV-(6)-8> 「國民皆兵」

34) 宮田節子 著/ 李熒娘 譯(1997) p.56

35) 김순전 외 번역(2005) 『일본초등학교 수신서(1941) 제V기』 제이앤씨 p.228

위의 『보통학교수신서』 <KV-(6)-9> 「國民皆兵」와 일본 『尋常小學修身書』 <JV-(6)-8> 「國民皆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병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일본에서는 만 17세부터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조선에서는 만 45세까지 연장하여 병역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을 황민화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는 억제시키고 의무에 대한 이행부분은 일본인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인들 중에는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황국신민화교육이 점점 강화되면서 친일 국민정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는 자들이었다.

여성교육자 김활란(金活蘭)은 ‘남자에게 지지 않게 라는 기고문에서 한 술 더 떠서 여학생들의 전쟁 동원이 “황국여성으로서는 다시없는 특전이기에 감격”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현상윤(玄相允)은 ‘천황’의 병사로 태평양전쟁에 출진하는 것이 황은에 보답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하였다.<sup>36)</sup> 또한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윤치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8월 1일 밤에 방송할 5분 강연을 준비했다. 주제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오늘의 환희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였다.’<sup>37)</sup>(1943년 7월 23일 금요일)

윤치호는 조선에서의 징병제에 대해 민족의 환희라며 격려하는 방송연설을 하였다.

해방 이후의 우리의 교육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국신민화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인’, ‘황국신민’을 양성하고 민족말살에 참여했던 국민학교 교사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 교육계의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왜 논란이 일지 않았는가? 해방 후 미국식 학제가 도입되었지만 일제하 사범학교 출신들에 의해 황국신민화 교육의 규율질서가 의연히 유지되었던 것 또한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가? 에 대한 주장<sup>38)</sup>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일제하에 초등교육은 서구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역할과 내선일체를 기조로 한

36) 이치석(2005) pp.103-105

37) 김상태 편역(2001)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p.497

38) 윤해동(2003)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p.63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시기였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근대천황 중심체제의 국체와 국가신도, 그리고 국가신도의 교전 역할을 한 교육칙어 사상을 조선의 근대 교육기관인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교육을 통해 강제 주입하였다. 1890년 일본에서 시작된 ‘교육칙어’를 ‘무신조서’, 「국민정신작흥조서」, 「청소년 학도에 하사하신 칙어」, 「미국 및 영국에 대한 선전의 칙서」로 그 내용을 보완하는 조칙을 계속 제정하면서 관철시켜 나갔다. 이는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가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철저하게 천황 절대체제를 교육시키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당시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을 제조하는 국가주의 공장 역할을 대행했다고 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 때 등장한 ‘해국조회’ 조선어 감시에서 유래한 ‘주변제도’, 황민화행사의 연장이었던 ‘학생동원’, 이러한 내용은 황국신민화의 세뇌와 군사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끊임없이 학교교육과 행사를 통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과정으로 아동들에게 히노마루를 바라보며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여 아동들의 의식 속에 ‘충량한 신민’으로 자라나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병행시켜 나아갔다.

또한 일제는 『보통학교수신서』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이 자주성을 고취하기 위해 단군을 받드는 것을 바르지 않은 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묘사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일제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을 일본의 고유 신앙인 신도로 대치시키고, 한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 대신에 그들의 만세일계의 상징인 천황을 신으로 승격시켜 숭배하게 하였다. 이는 일제가 조선의 전통적 민속신앙과 유교를 전근대적 요소로, 민족의 전통신화인 단군을 요사(妖邪)한 인물로 묘사해 놓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일본 국가신도와 교육칙어를 학교교육을 통해 그 중심에 있는 국체인 천황을 공경하고 받들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점차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조선인을 유도·회유·강요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황민화해 가는 과정과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인이 되었을 때의 권리에 대한 행사는 억제시키고, 의무에 대한 이행부분은 일본인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보통학교수신서』 분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가 추구한 식민지교육의 연원은 국체의 정화에 있다고 하는 데, 그들이 말하는 황국의 도는 결국 교육칙어에 명시되어 있던 도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상봉(2005) 『도덕교육의 파시즘』 도서출판 길 p.27
- 김상태 편역(2001)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p.497
- 김순전 외 번역(2005) 『일본초등학교수신서 1904 제 I 기』 제이앤씨 pp.18-19  
\_\_\_\_\_ 『일본초등학교 수신서(1934) 제 IV기』 제이앤씨 p.165, pp.297-300  
\_\_\_\_\_ 『일본초등학교 수신서(1941) 제 V기』 제이앤씨 p.228
- 손인수(1971)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237
- 안재구(1997)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 돌베개 p.150
-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346
- 윤희동(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pp.58-63
- 이치석(2005) 『전쟁과 학교』 삼인 pp.83-84, pp.103-105, pp.247-251
- 윤희동(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p.63
- 정운현(1999)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개마고원 pp.64-65
- 조연순 외 4인(2005) 『한국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교육과학사 pp.53-119
- 최석영(1999)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pp.121-122
- 서울교육연구회 편역(1995)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 한울 p.44, p.51, p.113, pp.232-233
- 朝鮮總督府(1914), 『初等唱歌 第六學年用 新編唱歌集』 p.10, p.26
- 고모리 요이치 지음/송태욱 옮김(2003)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했다』 뿌리와 이파리 p.10
- 佐藤秀夫(1996) 『續・現代史資料10 教育 御眞影と教育勅語 3』 みすず書房 p.3
- 鶴見俊輔 지음/최영호 옮김(2005), 『전쟁(戰時期)의日本精神史(1931-1945)』 논형 pp.53-54
- 테사 모리스 스즈키 지음/박광현 옮김(2005)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산처럼 p.113
- 村上重良(1970) 『國家神道』 岩波新書 p.1
- 宮田節子 著 李榮娘 譯(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 p.29, p.56
- 야스마루 요시오 지음/이원범 옮김(2002)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 小花 p.8, p.64
- 박균섭(1999) 「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 일본학보 제 43집 pp.547-565  
\_\_\_\_\_ (2002) 「교육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 일본학보 제 51집 pp.439-454
- 정태준(2003) 「초등학교 단생에 나타난 천황제 사상교육」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제 23집 pp.191-214  
\_\_\_\_\_ (2004) 「일제강점기하 수신교과의 정책연구」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제 27 집 pp.235-263

## 要 旨

本論文での研究時期は19世紀末から1945年までにし、まず、日本が近代化される過程での國體の形成過程と近代天皇制の登場、教育勅語の制定を探る。更に日帝が教育政策と普通學校、尋常小學校、國民學校の教育を通じ、學校教育を畫一化し、教師と學生との間を組織化し、國家神道と教育勅語が朝鮮の國民學校の教育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考える。そしてこれを通じ、浮き登りになった皇民化政策の矛盾や同化政策に隠れた差別構造などを朝鮮人の植民地化に必要なイデオロギー教育の精髓ともいえる朝鮮總督府發刊の『普通學校修身書』の内容を中心に分析し、これらを明らかにする。

キーワード：教育勅語, 國體, 國家神道, 皇國臣民, 近代化, 國民學校

투 고 : 2006. 2. 28  
1차 심사 : 2006. 3. 11  
2차 심사 : 2006. 4. 1

住 所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번지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30-3211/016-600-0362  
e-mail : sjkim77@chonnam.ac.kr

住 所 : (443-736)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주1차 아파트 103동 811호  
電 話 : 062-530-3218/011-670-4809  
e-mail : didit@hanmail.net